

역사용어, '역사적 사실' 을 기억하는 현재의 방식

사학계의 새로운 시각... 학문적 의미 담아

10월 이달의 책 후보 도서

〈책 속에 갇힌 문학, 책 밖으로 나오다〉

강춘진 지음 | 가교출판 | 320쪽 | 값 9,500원

〈거대한 뿌리〉

김중미 지음 | 검동소 | 208쪽 | 값 9,000원

〈아인슈타인의 달팽이〉

전기철 지음 | 문학동네 | 152쪽 | 값 7,000원

〈한국 인물 연극사〉(1,2권) 유민영 지음 | 태학사 |

1권 779쪽, 2권 800쪽 | 값 1권 34,000원 2권 38,000원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박정자 지음 | 기파랑 | 280쪽 | 값 12,000원

〈단도와 활〉 채명석 지음 | 미래M&B | 374쪽 | 값 13,000원

〈21세기 한중일 삼국지〉

우수근 | 두리미디어 | 384쪽 | 값 15,000원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비평편집위원회 엮음 | 역사비평사 | 328쪽 | 값 12,000원

〈우방과 제국, 한미관계의 두 신화〉

박태균 지음 | 창비 | 440쪽 | 값 17,000원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는 겨울을 판다〉

(사)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살림 엮음 | 삼인 | 250쪽 | 값 9,800원

〈평화를 위한 끝쓰기〉

김우창 엮음 | 민음사 | 804쪽 | 값 25,000원

선정위원별 1~3위 추천도서

박상의 우석대 교수

1. 《거대한 뿌리》
2.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3. 《역사용어 바로쓰기》

윤지관 한국문학번역원장

1. 《역사용어 바로쓰기》
2. 《너희는 봄을 사지만》
3. 《한국인물연극사》

신중호 월간〈복새동〉 편집장

1. 《역사용어 바로쓰기》
2.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3. 《21세기 한중일 삼국지》

최재봉 한겨레신문 문학전문기자

1. 《우방과 제국》
2. 《역사용어 바로쓰기》
3. 《21세기 한중일 삼국지》

김중미는 인종, 신분, 성과 직업의 차별을 뛰어넘는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만이 그 해답이라고 말한다. 삭막한 이 시대에 잔잔한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2.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이론은 흥미롭다. 현대사회의 소비는 소비자가 주체가 되어 상품(대상)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테면 유명 광고 모델(매개자)이 쓰는 것을 따라가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욕망에는 전염성마저 있다고 한다. 정당의 정강정책(대상)보다는 정당의 지역성(매개자)을 보고 투표권을 '소비' 하는 한국 유권자들의 '지역감정'도 이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할 듯하다. 귀족적 품위를 뜻하는 'Distinction'은 차별, 구별을 뜻한다. 귀족이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차이가 있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차이'이지 '재화' 그 자체가 아니다. 부하 직원이 외제차를 타면 자신은 소형 국산차를 사용함으로써 차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준다. 아래 계층과 구별되는 차이의 효과 그 하나이고, 돈 많은 사람이 소박하고 겸손하기까지 하여 서민에게 친근감을 준다는 것이 그 두 번째이다. 그렇다면 거부인 빌 게이츠와 워런 버핏이 만나 10달러대의 겸손한 식사를 한 것도 과소 소비(under-consumption)를 통한 차별화 시도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가 서울대 폐지론 주장자들을 한국의 '주류'로 간주하는 것은 생똥맞다(119쪽). 이 같은 인식 오류는 '지적 반(反)소비현상' 일깨(103쪽) 아니면 '시니피양과 시니피에의 분리' 일깨(187쪽), '잃어버린 10년'에 방향 감각을 잃은 이 시대 '주류' 지식인의 어지러운 내면의 일단을 들여다보게 해주는 미덕도 덩어리 갖출 흥미로운 책이다.

3. 《역사용어 바로쓰기》

유럽인은 지중해 동부연안지역을 자기네와 가까운 지역이란 의미에서 근동(near east)이라 불렀고, 자기들과 가장 멀리 떨어진 동쪽 지역을 극동(far east)이라 불렀다. 근동, 극동이란 말은 철두철미 유럽인의 시각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서쪽에서 동쪽을 대상화, 타자화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인터넷 검색창에서 '극동'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 보자. 극동방송, 극동문제연구소, 극동건설, 극동대학교, 극동해운...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하는 이름이 지금도 너무나 당당하게 사용되고 있다. 자아정체성, 민족주체성이라고 찾아보기 힘들다. 언어는 의식을

박상의 우석대교수

1. 《거대한 뿌리》

기지촌 이야기는 불편하다. 교장선생님이 절대로 혼혈아를 대표선수로 할 수 없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축구 실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조재민이 후보 선수를 면치 못했다는 대목에 이르면 읽는 이의 마음이 부끄러워진다. 그가 학교에서 동네에서 집에서 늘 개방의 도토리처럼 곱도는 신세인 것도 영 마음이 편치 않다. 나도 그 공범자가 아닌가 하여... 주인공 김정원은 그런 재민을 보면 명치끝이 아팠고, 그가 안타까워 안아주고 싶었다. 정원의 편견없는 고운 마음을 재민이 모를 리 없다. 헤어지기 전날 재민은 말한다. "김정원,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너만큼 친한 친구가 없었어. 미국 가면 너밖에 생각 안 날 거야." 우리나라에서 2020년 무렵에 태어날 신생아 세 명중에 한 명은 혼혈아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혼혈과 피부색깔로 인한 깊은 갈등의 골을 서둘러 치유하지 않으면 국가 공동체의 존립마저 위협 받을 상황이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일까? '누군가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되면 그 누군가와 동무가 된다' 고 믿는

규정한다고 했지만, 한국고대사의 시대구분용어인 '삼국시대'란 말도 엄연히 우리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던 가야의 존재를 무시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역사왜곡이다. '사국시대'로 불러야 할 것이다. '통일신라시대'도 마찬가지다. 발해도 엄연히 우리 역사인 만큼, 통일신라와 발해를 아우르는 '남북국시대'로 고쳐 쓰는 것이 사리에 맞다. 중국의 동북공정과 일본의 역사왜곡이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 책은 먼저 우리 안을 들여다볼 일이라고 주장한다.

신종호 편집장

1. 《역사용어 바로쓰기》

사물이나 사건에 이름을 부여하거나 개념과 용어를 적용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공적(公的) 의미를 부여하는 적극적 행위다. 교육이란 과학자나 학자들이 명명한 개념을 체득하는 사회화의 한 과정이다. 대상의 의미를 왜곡하는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은 사회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다. 과학의 영역에서는 부적절한 용어 사용으로 인한 혼란이 비교적 드물고 그 정도와 폭도 좁은 편이다. 그러나 인문학에서는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다. 그 중에서도 역사와 관련된 것들은 참여한 갈등과 파장을 불러오기에 용어 사용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역사용어는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현재의 방식이다. '5·18 광주사태'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는 용어 사용은 5월 18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각기 다른 기억의 방식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올바른 역사용어의 사용은 역사를 바로 보는 시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용어들을 수없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사태를 직시하고 35인의 학자들이 40개의 역사용어를 선별하여 그 의미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역사용어 바로쓰기》의 내용이다. 기존의 용어를 비판하고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기도 하고, 혼용되고 있는 용어나 상이한 용어들의 맥락을 비교 분석하고 있는 이 책은 역사를 보는 안목을 한층 높여준다.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로, 통일신라시대가 아니라 남부국시대로 불러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은 물론 해방과 광복, 친탁과 반탁, 월북과 남북, 의사와 열사 등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의 문제점들을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2.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

현대인들에게 낭비와 사치는 악덕일까, 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열에 여덟은 악덕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좋은 태도는 아니라는 중간 정도의 답을 할 것이라 추측해본다.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사치와 낭비란 부정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은밀한 동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한 이중적 판단이 바로 소비사회를 사는 개인들이 처한 현실의 구조다. 《로빈슨 크루소의 사치》는 그러한 의식의 간극을 흥미롭게 메워가고 있다. 소비사회를 하나의 텍스트로 규정하고 그 텍스트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해가는 구조주의적 시각과 풍부한 논거들이 독서의 흥미를 배가시켜준다. 소비와 낭비를 예찬하는 구조적 맥락이 전혀 깔려있지 않다. 이유는 생각이 없는 낭비와 소비를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구축해가는 활력으로 접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개성과 문화 그리고 그것의 소비를 촉진시키는 교육과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에 소비의 긍정성을 재발견할 수 있다. 현대의 팝아트, 광고, 유행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문화의 소비가 활력적인 소통의 방안이라는 신선한 메시지를 전하는 흥미로운 책이다.

3. 《21세기 한중일 삼국지》

타민족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은 시대착오적인 국수주의를 유발하고, 지나친 동경은 주체성을 망각한 사대주의를 불러온다. 한자문화권에 속한 한국, 중국, 일본의 관계는 그러한 두 극단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1세기 한중일 삼국지》는 편견과 비하로 얼룩진 삼국의 관계를 다양한 각도에서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비교하면서 삼국의 공생과 미래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하다.

윤지관 원장

1. 《역사용어 바로쓰기》

역사기술도 언어로 이루어지는 만큼 용어의 문제는 역사를 해석하는 관점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그릇된 역사 용어는 역사에 대한 왜곡을 낳기도 한다. 한국사에서 역사 용어에 대한 점검과 논의는 역사기술의 방향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을 이룬다. 이 책은 일반인들의 역사 의식을 새롭게 일깨우는 미덕도 있지만 여기서 이루어지는 역사 용어에 대한 재검토와 제기하고 있는 새로운 용어 구성은 현 단계 사학계의 새로운 시각을 읽을 수 있게 하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학문적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

2. 《너희는 봄을 사지만》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약소자의 삶을 살고 있는 계층 가운데 하나가 성매매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성매매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사회적 과제이기도 하면서 사회적 구조의 희생자이기도 한 피해여성의 삶의 회복과 실현을 위해 이룩해야할 기본권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이 책에서는 '글쓰기'를 매개로 하여 피해여성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되살려내고 스스로를 치유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이 사회적이고 인간적인 문제에 내실있게 접근한다.

3. 《한국인물연극사》

이 저서는 인물을 통해서 한국의 연극사를 구성해나간 저자의 역저 중 하나이다. 하나하나가 짧은 평전의 의미를 갖거니와 이 인물들의 개별적 삶들이 엮여져서 연극사의 흐름을 이루고 있다.

최재봉 기자

1. 《우방과 제국》

FTA며 작통권 이양문제 등이 불거진 지금 시점에서 미국과 우리의 관계는 어땠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풍부한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해방부터 1980년 5·18까지를 대상 시기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 한미관계의 본질은 다 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친미나 반미나 식의 일방적 관점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을 보여주는 게 장점이다. 단순히 한미관계사를 연표 순으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의 흥미를 끌 만한 소재목을 배치한 것도 눈길을 끈다.

2. 《역사용어 바로쓰기》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위안부, 민족자본처럼 반성 없이 잘못 쓰고 있는 역사용어를 바로잡는 일을 통해 역사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도모하는 취지의 책이다. 전문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일찌감치 상식이 되어 있는 인식=역사용어라도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공유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 아래 전문가들이 항목별로 친절한 설명을 곁들인 점이 가상해 보인다.

3. 《21세기 한중일 삼국지》

동북아시아의 인접한 세 나라는 고유한 문화적 배경과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지금도 경제적 교류와 정치적 갈등을 주고받고 있다. 심지어는 스포츠에서도 미묘한 경쟁관계를 보이고 있다. 세 나라 각자의 내부에서는 다른 두 나라를 적대시하는 민족주의가 발흥, 팽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동북아시아 삼국이 경쟁 속에서 상호 이해와 발전을 꾀할 수는 없는지, 갈등의 본질을 확인하고 그를 넘어설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책이다. 